바른미래 ‘벼랑끝 대치’

지도부, 사퇴 거부 강경노선
바른정당계 불신임 의총 소집
권은희 이탈에 호남계 열세
김동철 “끝장토론 통해 결정”

바른미래당에서 해촉된 대변인단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와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지도부 사퇴론을 놓고 당내 계파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결국, 당무 마비를 넘어 조만간 분당 수순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 중이며 원내대책·정책회의 역시 ‘반쪽 회의’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의 ‘투톱’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의 지도부 퇴진론을 당을 파괴하기 위한 ‘해당 행위’로 규정,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퇴 요구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연대·통합하려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계산이 깔려있다는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겨냥해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겠느냐, 2번과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2번을 달겠느냐”고 따져 물은 뒤 “3번을 달겠다면 저는 그 즉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 사퇴요구는 (그들이)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지금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고 대표직을 던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손 대표가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를 무더기 해임한 데 이어 김 원내대표 또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전원과 당 정책위의장인 권은희 의원(광산 을)을 비롯한 국민의당 출신 의원 7명 등 15명의 의원은 이날 지도부 재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의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당원권 정지 중인 의원(박주현·이상돈·장정숙)과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의총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김동철, 김성식, 박주선, 이찬열, 임재훈, 주승용, 채이배, 채도자 의원 등 8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도·호남계가 보수 진영에 밀리는 형국이다. 특히, 광주에 지역구를 둔 권은희 의원의 이탈은 뼈 아프다는 지적과 함께 그가 호남을 버리고 개혁 보수 진영에 힘을 실은데 대해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의총 소집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는 2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 바른정당 출신인 유의동 의원은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치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의 ‘기호 3번’ 발언에 대해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양치기 소년에서 늑대로 돌변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으며 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의원들 3분의 2가 사퇴하라고 하는데 또 궤변을 내세우며 동료의원들을 모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바른미래당 광주지역 김동철·박주선·권은희 의원은 7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지만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동철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차이를 인정하고 갈라서든지 5월 말이나 6월 초께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초께 끝장토론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도 제3지대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 의원은 “총선국면에서 제3지대를 구축하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심력을 갖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파전 ‘예측불허’

더불어민주당이 8일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치른다. 이인영·노웅래·김태년 의원(기호순) 등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은 선거를 하루 앞둔 7일까지도 유력 후보를 가늠하기 힘든 예측불허의 판세를 보이고 있다.

‘안갯속 판세’에 따라 경선 당일, 지지 후보가 불명확한 부동층의 향배가 결과를 좌우할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후보들 모두 어린이날 황금연휴는 물론 사실상 선거전 마지막 날인 이날도 통화 등을 통해 부동층 표심 공략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선 세 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만큼 이번 경선에선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1차 투표 결과 1, 2위 후보 간 표 차이가 크게 나면 대세론에 3위 후보의 표가 1위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은 그동안 유권자인 의원들과 직간접적인 접촉면을 넓혀나가며 저마다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은 ‘혁신과 변화’를, 노 의원은 ‘소통과 능력’을, 김 의원은 ‘경험과 유능’을 각각 부각하며 선거전에 임했다.

이번 원내대표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 꽉 막힌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을 풀어야 할 난제를 떠안고 있다. 또 건강한 당정청 관계 구축과 민생입법 성과도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패스트트랙 대치’ 고발 의원 97명

한국당 62명 등 총 164명 접수 … 검찰, 공안부에 배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7일 “현재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이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검찰은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14건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며 “먼저 접수돼 형사부에 배당했던 사건도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연루된 인원이 100명을 훌쩍 넘는 대형 사건인 만큼 공안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찰로 넘겨 수사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녹색당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3명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민생 외면 ‘민생투쟁 대장정’

추경·민생 입법 등 현안 산적
민주당, 5월 국회 소집 제안
野 3당도 “국회 돌아오라”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의 대치로 7일 빈손으로 종료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본격적인 장외 ‘민생투쟁’을 선언,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장외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투쟁적 장외집회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민주당 여당으로서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며 개헌논의 재개를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고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장외집회를 계속해 온 한국당은 이날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을 바꿔 전국 순회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며 안보 공세에도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광주 동구 시장·상점 활성화 예산 9억원 확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동남을) 의원은 7일 “동구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부가 선정한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조선대 장미의 거리, 패션의 거리)가 선정됐고, 각 사업별(1년) 최대 3억 원(총 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 있고 균등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관련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전통시장·골목상권 기반조성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35억4천만원) 및 대인예술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MODERN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총 4회)
시간 오후 3시 ~ 6시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동구 금남로 221)
대상 중3+고등학생(20명)+학부모(10명)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청 ☎010-5205-5668(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작가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